

납 활자로 인쇄한 시집 재연

단어 하나하나 정성 머금어



이제는 출판계에서 거의 그 자취를 찾아볼 수 없는 납 활자 인쇄 방식을 사용한 책이 다시 등장했다. 활판인쇄는 1960~1970년대까지만 해도 출판 인쇄의 주류를 이뤘으나 이후 대량고속인쇄가 가능한 오프셋 인쇄와 전산조판 등 디지털 출판 기술의 도입과 함께 점차 사라지기 시작해 지금은 거의 그 명맥이 끊긴 상태다. 그러나 활판 인쇄의 쇠퇴를 안타까워하던 시월출판사의 박한수 대표와 북디자이너인 정병규 씨, 시인 박건한 씨 등이 뜻을 모아 경기 파주 출판단지 안에 인쇄공방 '출판도시 활판공방'을 마련하면서 활판 인쇄가 되살아나게 됐다.

박성권 기자 vovsys@print.or.kr

디지털 시대 새로운 활판인쇄 전통 복원

1980년대부터 디지털 인쇄에 밀려 점차 사라지던 납 활자 인쇄 공정. 이 인쇄 방법을 이용한 시선집이 출간됐다. 앞으로 10년에 걸쳐 중견 및 작고 시인 100명의 시선집을 활판인쇄로 낸다는 계획 아래 우선 '활판공방 시인 100선' 시리즈 첫 두 권이 출간됐다. 이는 활판인쇄를 되살리려는 문학계 인사들이 뜻을 모은 일로 우리나라의 인쇄문화 보존을 위해 의미 있는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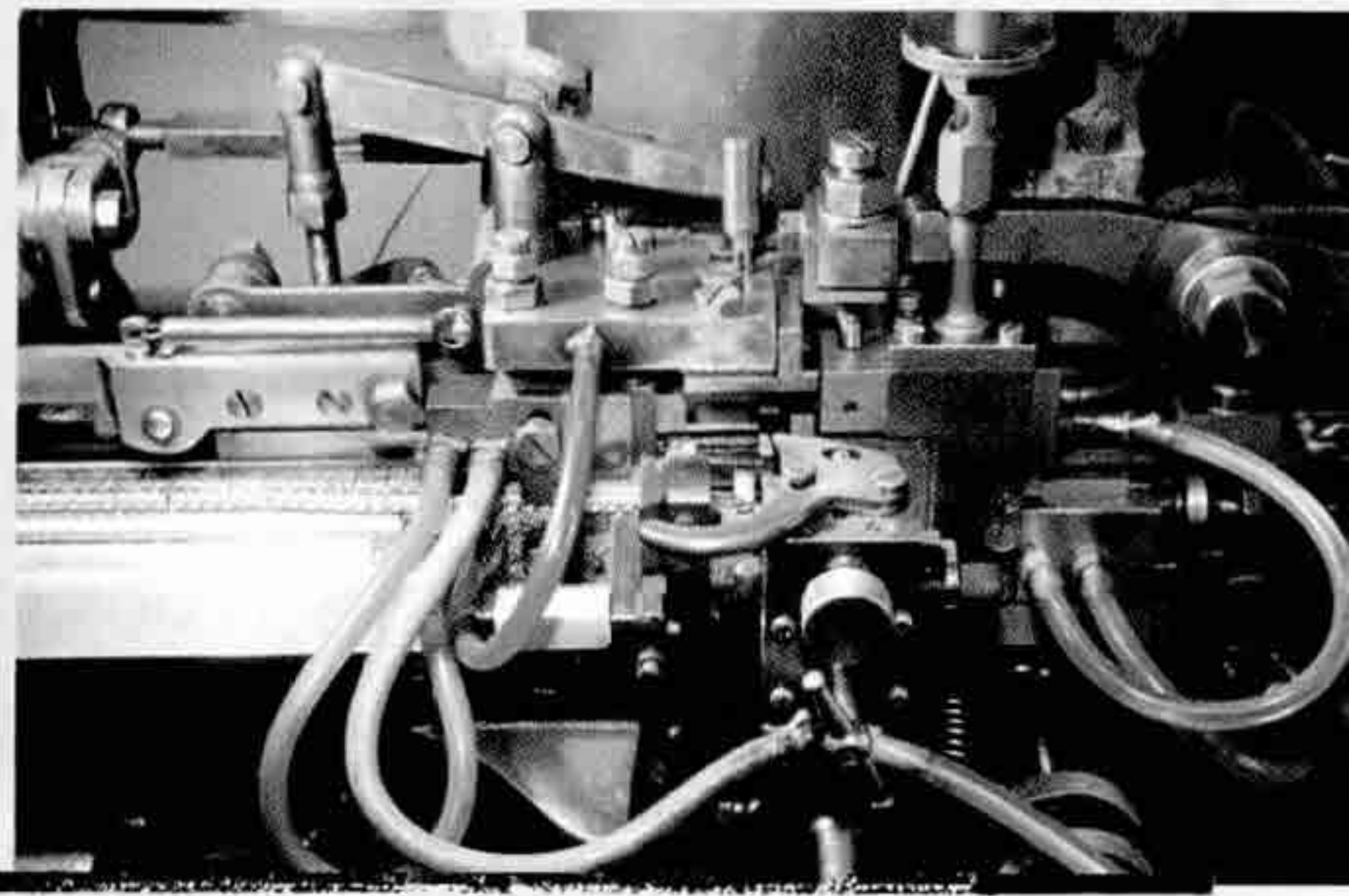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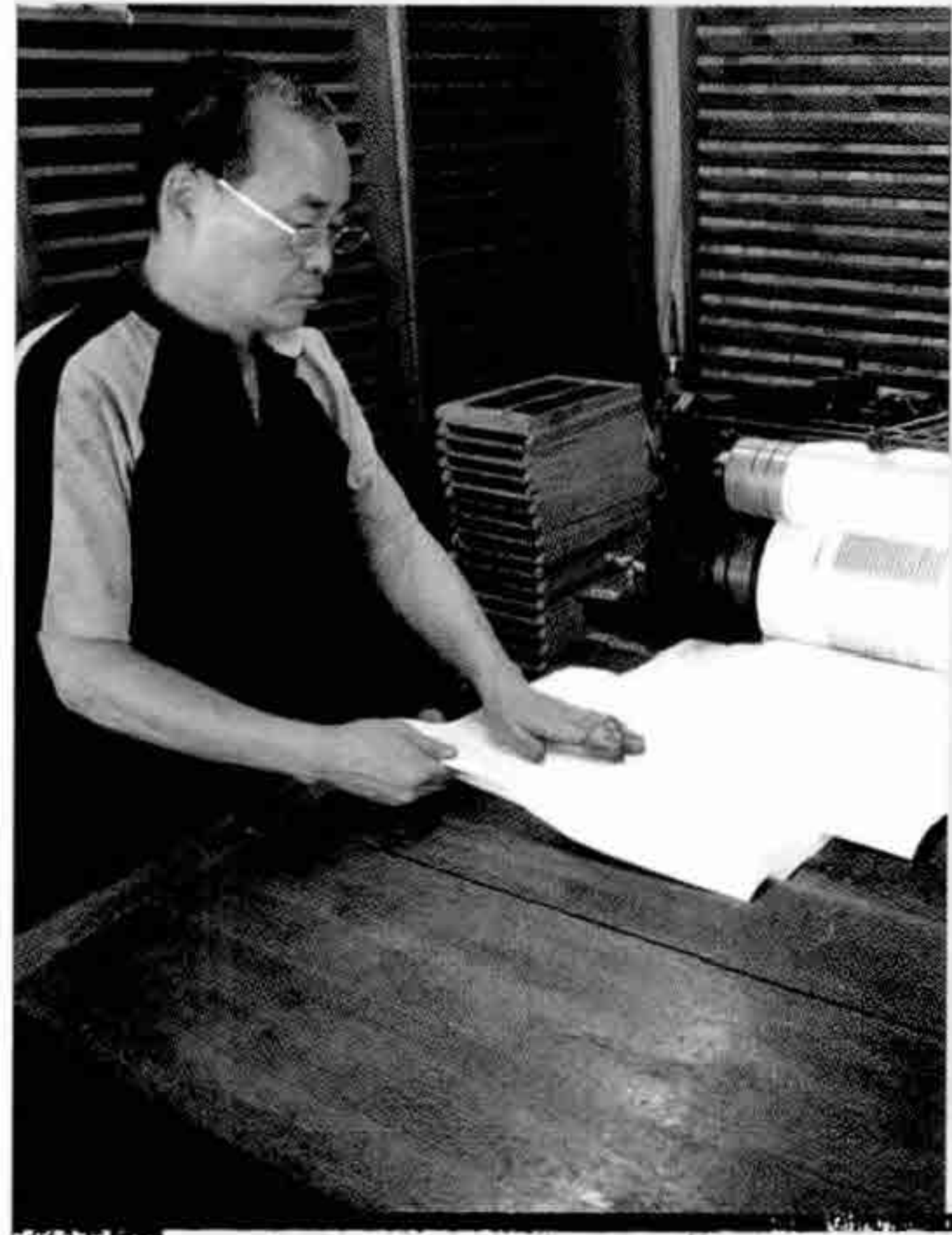
신구 세대를 통틀어,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활판인쇄라는 단어 자체가 낯설 것이다. 활판인쇄는 지금 같은 컴퓨터 시스템이 인쇄업계의 주종을 이루기 한참 전 단계로 일일이 사람 손을 거쳐 글자를 뽑고 판을 만들어 인쇄하던 수공업 시스템이다. 80년까지 모든 인쇄물은 이 활판인쇄로 찍었다.

출판도시 활판공방은 우리 근대출판의 발전에 소임을 다했던 활판인쇄에 관한 자료를 정리, 그 실상과 문화·산업적 기능을 유존케 하면서 출판, 교육, 학술 등의 다각적인 사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라진 활판인쇄의 전통을 계승하여 복원하고 디지털 시대에 새로운 종이책의 세계를 시도하는 것으로 팩토리형 공간을 연출하여 출판, 디자인, 인쇄 관련자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유익한 체험의 장소가 된다. 활판공방에서는 주로 문학인의 시선집을 수제 한정본으로 발행하거나 전시사업을 통해 보다 많은 전문가들과 일반인에게 활판세계를 체계적으로 소개하는 사업, 한지에 활판인쇄를 한 후 전통제작 방식으로 고서의 영인본 등을 제작하는 작업이 이뤄진다.

우리 민족의 자긍심과 전통을 계승한다는 소박한 꿈

지금으로부터 630년 전인 1377년 청주 흥덕사라는 절에서 인쇄한 현존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본 불경인 <직지심체요절>을 가진 민족으로서 우리가 문화민족임을 자긍하면서도 요즈음 우리 주변에서는 납 활자 인쇄본을 찾아보기 어려운 현실이 되어 버렸다. 그것은 컴퓨터 인쇄로 말미암아 편리하고 효율적인 인쇄 방식으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이다.

활판인쇄는 1960년대 후반이 전성기. 그 후, 대량 고속인쇄가 가능한 오프셋인쇄나 전산 조판 시스템으로 대표되는 기술혁신, 숙련을 요하는 활판인쇄 기술자의 고령화, 젊은 근로자의 구인난 등에 따라 서서히 쇠퇴하기 시작한 활판인쇄. 그리하여 오늘날 활자는 대부분 고물상을 거쳐 쇠덩이가 되어버렸으며, 활판인쇄기는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급속히 하나 둘씩 자취를 감추기 시작하다가 지금은 거의 찾아보기조차 어렵게 되었다. 설령 활판인쇄기가 있다 하더라도 누구 한 사람 거들떠보지 않는 실정이며, 따라서 전혀 가동되지 않은 채 먼지만 뒤집어쓰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워 뜻 맞는 몇몇 인쇄출판계 인사와 문인, 그리고 북 디자이너들이 금속활자 발명국의 후손으로서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활자문화의 전통을 계승하여야 한다는 소박한 꿈을 이루기 위하여 활판인쇄를 살려나가기 위한 작업을 하기로 손을 잡았다.



글자 하나하나에 전문가의 땀방울이 찍혀
 옛날에는 컴퓨터가 도입되지 않은 시기라 모든 책이나 잡지
 원고나 신문 기사는 기자들이나 저자들이 원고지에 일일이
 손으로 썼다. 기사 쓰는 작업이 끝나면 이 원고들은 조판소
 로 넘겨져 문선공들이 글자 한 자씩을 손으로 뽑아 판을 만
 들었다. 글자들은 옛 방식 그대로 양각으로 한 자씩 만들어
 진 것이다. 원고도 한 자씩 손으로 써야 하고 그것을 찍어내
 기 위한 글자도 일일이 손으로 뽑아야 하는 1백 퍼센트 수작
 업인 것이다.

문선공이 판을 짜면 일단 다시 원고를 쓴 이에게 보내져 교
 정을 거치게 된다. 이때 일급 문선공들은 잘못 쓴 글자까지
 아예 수정을 해서 짜보내는 실력을 보여줘 쓴 필자들을 머쓱
 하게 만들기도 했다. 단행본 출판인 경우 세 번 정도 교정을
 하게 되는데, 교정지에 따라 매번 사람 손을 거쳐 다시 글자
 를 뽑거나 수정을 해야 했다. 때로는 오래 써서 깨진 글자들
 도 있어 이것 역시 교정의 대상이었다.

이렇게 활자들로 짠 판으로 만든 지형을 만든 후 거기에 납
 을 부어 글자판을 만들고 이것을 기계에 붙여 인쇄하는 것이
 활판인쇄다. 덜커덩, 철컥 하며 기계가 돌아갈 때마다 한 장
 씩 인쇄물이 나와 시간당 2천장 정도를 찍을 수 있었다. 그

래서 바쁘게 만들어야 하는 책들은 인쇄소에서 며칠을 새워 기한을 맞추기 일쑤였다.
 당시 인쇄사에서 쓰이는 말들은 거의가 일본식 조어로 도비라, 게라, 혼스리 등의 말들이 쓰여 초보
 기자들은 익숙하지 않은 이 출판, 인쇄용 단어들을 입에 붙이기 위해 애를 먹기도 했다.
 인쇄가 끝난 후에 활자판들은 해체되어 다시 낱알의 글자로 돌아가고 지형은 출판사의 재산으로 남아
 있게 된다. 이 지형은 몹시 무겁고 자리를 많이 차지해 보관이 만만치 않다.
 활판인쇄로 찍혀져 나온 책들은 울룩불룩한 인쇄 자국이 그대로 살아있어 글자를 뽑은 장인들의 손맛
 을 그대로 느낄 수 있으며 오랫동안 봐도 눈의 피로감을 느끼지 않는 장점이 있었다. 지금은 수천 글
 자도 컴퓨터의 delete 한 번 누르면 다 없어지지만 활판인쇄로 찍혀진 책들은 글자 하나하나에 쓴 사
 람의 수고와 그것을 판으로 짠 전문가의 땀방울이 찍혀 있었다. 그러니 더 소중할 수밖에 없었다.
 활판인쇄는 90년대 들어 오프셋인쇄에 밀려 모두 자취를 감췄다. 오프셋인쇄는 시간당 1만8천장을 찍
 어내는 속도감으로 활판인쇄를 밀어냈다. 따라서 글자를 짜는 조판소 등도 모두 사라졌다.

디지털 시대에서 아날로그 시대로

오늘날 같은 인터넷으로 대변되는 디지털 시대에 굳이 아날로그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
 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편리하면서도 공허한 면이 없지 않는 디지털 시대와는 달리 아
 날로그 시대는 인간의 피가 흐르고 따뜻한 숨결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자책이 아닌 활판인
 쇠에 의한 종이 책으로서의 구실을 다하려는 이 행위야말로 어찌면 시대에서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해 가면서 아니, 앞서가는 행보일지도 모른다. 지난날 납 활자로 인쇄된 종이 책을 읽으면서
 꿈을 이루고자 수많은 밤을 뒤척였던 그 젊은 날의 추억에 다시 한 번 흠뻑 젖어보기 위한 하나의 몸부
 림이어도 좋을 것이다.

아스팔트길이 아닌 시골의 자갈길, 그림 없는 그림책

활판인쇄는 밋밋하고 끝없이 지루한 아스팔트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마치 발바닥 감촉이 유별
 난 시골의 자갈길을 걷는 것처럼, 종이 책만이 갖는 특장을 살려, 눈의 건강에도 좋을 뿐만 아니라, 사

색의 날개를 달고 천천히 걸으면서 주변의 시골 풍광을 즐기는 느낌이 난다.

또한 시각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 치밀하게 계산된 면적의 행간과 여백을 살리는 작업을 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끝없는 상상력의 세계로 파고들게 될 것이므로 마치 그림 없는 그림책의 구실을 하도록 했다.

우물투둘한 엠보싱의 감촉, 문학적 질은 대표작만을 엄선 수록

활판인쇄는 전통한지 등 수명이 긴 특수 종이를 개발하고 거기에 독특한 장정, 그리고 고품스런 제책과 함께 적절한 폰트의 활자가 어우러져 매우 탄력적이고 다이내믹한 요철감에 의한 우물투둘한 엠보싱의 감촉을 느끼게 함으로써 한껏 가독성 높은 점자의 기능도 갖추었다. 또한 작고 문인의 대표작을 비롯하여 현재 활동 중인 문학인의 작품 중에서 작가가 스스로 뽑은 작품만을 단행본으로 엮음으로써 모름지기 대표작 모음의 구실을 하게 되었다. 대량 생산과 판매보다는 오직 독자에게는 오래도록 사랑 받는 애장본으로서, 저자에게는 후손에게 물려줄 보관본으로서 손색이 없도록 소량의 책만을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남 활자 매력에 빠진 시인들

역대 한국시인협회장을 지낸 정진규 허영자 이근배 김종해 오세영 시인(31~35대 · 재임 순)은 요즘 남활자의 매력에 푹 빠져 살고 있다. 현대시 100주년을 맞아 연말까지 각자 100편씩의 자선(自選) 기념 시집을 내기로 했다. 이들은 지금은 거의 사라져버린 남 활자로 찍은 시집을 선보인다. 김종해 시인의 '누구에게나 봄날은 온다'와 이근배 시인의 '사랑 앞에서는 돌도 온다'가 6일 먼저 출간됐고, '우리나라엔 풀밭이 많다'(정진규), '얼음과 불꽃'(허영자), '수직(垂直)의 꿈'(오세영) 등이 올 연말까지 나온다.

남으로 주조한 활자를 수작업으로 식자해 조판하는 활판인쇄는 1960년대 후반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지만 1980년대부터 오프셋인쇄에 자리를 내어주며 사양길에 접어들었다. 이후 컴퓨터 조판이 도입되며 사실상 자취를 감추었던 것을 역대 시인협회장들이 자선 시집들을 통해 부활시킨 것이다.

활판공정 작업 순서

자모조각(원도제작, 원자판 제작, 자모 조각) : 자모를 조각하려면 먼저 필요한 글자와 서체를 선택, 종이에 설계 제도하여 원도를 제작한다. 이 원도로써 아연판을 부식시켜 원자판을 만들고 이것을 조각기에 걸어 스케일을 조정하여 자모를 조각한다.

- ① 활자주자 : 활자 외에 활자와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판면을 구성하는 구두점이나 여러 가지 기호로 쓰이는 약물과 윤곽, 경계선 또는 장식 등에 사용하는 패선, 그리고 문장의 경계와 단락 등에 사용하는 오너먼트, 큰 괄호 역할을 하는 브레이크 등이 있다. 또한 활자를 임의의 위치로 배치하면 낱말 사이와 행간에 공백을 두어야 하는데, 이와 같이 공백을 두기 위한 재료를 통틀어 공목이라 한다. 공목에는 분공목, 배공목, 저스, 퍼니처, 인테르의 다섯 가지가 있다. 주자된 활자(한글, 영문, 한자), 부호 등은 활자케이스에 담아 케이스대에 보관한다.
- ② 문선 : 원고에 따라 문선 상자에 활자를 뽑아 모으는 작업이다.
- ③ 조판 : 문선한 활자를 원고에 지정된 대로 판을 짜는 작업을 말한다. 조판방법은 원고를 보아 가면서 스틱에 활자를 배열하는데 스틱에 활자가 차면 게라에 옮기고 다시 식자하여 간다. 이와 같이 되풀이하여 한 페이지의 판이 완성되면 조판 실로 판을 묶는다.
- ④ 교정 : 문장을 평이하게 고치거나, 오자가 있거나, 판면 또는 체제가 통일되어 있지 않을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해 원고와 대조하여 정정하는 작업을 말한다.
- ⑤ 인쇄 : 교정까지 끝난 활자판(조판)을 활판 인쇄기에 걸어서 인쇄를 한다.
- ⑥ 해판 : 재사용하기 위하여 인쇄가 끝난 활자판을 분해하여 활자와 공목, 그 밖의 것을 분류하는 작업이다. 한글과 한문, 서체, 크기별로 나누어 문선 상자에 넣어두고 약물과 공목은 제자리로 보낸다.
- ⑦ 복제판 : 활자판과 그 밖의 블록판 종류의 원판에서 지형, 연판, 전기판, 플라스틱판 등을 복제(재판)하는 것을 말한다. 복제판의 목적은 인쇄 능률의 증대와 원판의 보존, 그리고 같은 원판을 여러 판으로 재판할 경우에 시간과 수고를 덜거나 판의 모양을 적당히 변경시키는 데에 있다. 지형을 뜨고 거기에 연판용 납 합금을 부어 연판을 주자한다.
- ⑧ 지형 : 활판원판에 매트재를 놓고 압력기로 강압한 연판 주자용으로 특수용지에 오목형 본을 뜬다.
- ⑨ 제책 : 인쇄된 종이를 순서에 따라 모아서 읽기 쉽게 책으로 엮는다. ↻